제주의 고유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색채계획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vironmental Color Planning Methods Enhancing Quality of Color Image of Cheju-Island

권진희* / Kwon, Jin-Hee

Abstract

In the millenium, which will be characterized by its global culture, a strong sense of identity of one's culture is needed to nature one's culture in a way that more people can participate in creating, enjoying and consuming it.

In order to respond to both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natural and cultural backgrounds of such reg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versation of nature, so that the optical and color environment can have local identity while undergo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nhance the image of a city, which is endowed with beautiful scenery and unique culture, but has lost its identity since industrializatioAn through a scientific and systematic color planning The Research was conducted as follows.

First, color environment which doesn't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due to modernism which emphasizes on uniformity was examined.

second, standard and analysis of environment color planning were examined. Natural color specimen was use to make a palette of nature colors, from which colors for architecture were extracted to come up with color combination types.

Without traditional architecture philosophy, materials and colors, which were once in harmony with the environment, it is impossible to clean up the environment all together. However by using colors to control new city plans, urban redevelopment, construction and renovation gradually, that process can be effective and less costly.

키워드 : 제주, 환경색채, 고유색, 색채팔레트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색채는 환경의 성격과 분위기를 창조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도구이며, 환경색채가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역마다 지형과 기후조건, 청명일수가 다르고 그에 따라 자생하는 식물의 종류가 다르며 바다와 접해 있는지, 사막지역인지와 같은 환경조건에 따라 지역색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지역색과 함께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오랜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색에 따라 그 지역의 고유 이미지가 형성된다.

본 연구는 색채계획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통제를 벗어난 제주의 색채환경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의 자연에 나타나는 색채의 특징을 조사, 분석하여 자연색체계(NCS)에 의한 색채팔레트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1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위한 것으로 제주의 아이덴티티 확보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서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환경색채의 미학적 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제주를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그리고 모든 주거지와 관광지로 통하는 주요도로지역, 교통수단인 배를 통해 제주의 이미지를 알 수 있는 항구접안지역, 현재 제주의 전체 경관미와 시각적 흡수능력을 조사한다.

둘째, 제주 전 지역의 토양을 중심으로 제주의 자연 현상에 나타나는 색채의 특징을 조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째, 제주의 인공색채환경에 대한 사진촬영 및 문헌조사를 통해

* 정회원, 제주관광대학 컴퓨터디자인과 전임강사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둘째, 수집한 색채샘플을 통한 색채정보에 의해 자연색을 분석하고 제주 이미지를 도출해낸다.

셋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의 지역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색채 팔레트를 제안한다.

2. 제주의 색채환경 현황과 문제점

모더니즘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직역적이며 풍토색 짙은 스타일을 거부하고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축으로서의 국제주의 양식을 주장하였고 대중에게 한가지 스타일의 경직된 디자인을 강요하였다.[1)]

이러한 획일성을 강조하는 영향은 색채에서도 나타났다. 색채 또한 지역적 특성, 전통색을 무시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포괄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미국, 일본의 어느 도시를 보아도 도시의 색이 획일적이고 한국 내에서도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색채 환경이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제주 또한 과학의 발달과 현대화로 인해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건조 환경의 질적 수준과 인간의 쾌적한 삶에 대한 색채 환경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날의 제주 모습은 지역 아이덴티티(local identity)가 사라지고 주변환경과 맞지 않는 이질적이고 획일적인 무개성의 환경으로 변해 버렸다. 즉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표현 장소로써의 역할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 도시지역

1955년 제주읍에서 제주시로 승격된 이래 50여년이 흐르는 동안 제주시 경관은 무계획적인 개발, 도시환경디자인의 부재로 인하여 분명 다른 도시들과 차별성 있는 자연적 특성, 생태학적 특성, 인문사회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느 다른 도시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은 다양한 색채의 건물과 가로 시설물 등으로 환경색채를 형성하고 있는데 광고나 사인보드, 도로표지 등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건물의 색채자체가 그 지역의 경관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적다. 그러므로 가로 시설물의 형태, 색채의 규제가 필수적인데 비해 제주도의 도시지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른 지역의 도시처럼 회색빛의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채도가 높은 들쑥 날쑥한 간판들, 유리창을 뒤덮고 있는 썬팅 광고들로 인해 건물 외벽을 완전히 가리고 있어 오히려 명시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되기 전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비선형적인 도로, 자연과 그대로 융화되는 스카이 라인, 건축에 있어서 자연재료의 사용과 그에 따른 지역색이 표출되었으나 도시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예전의 모습은 언제 그런 모습이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도시계획 초기부터 전문가, 행정가, 언론인, 교육인들은 제주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자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제주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다.

a)제주시 시청가로
제주시의 대표적인 가로중이 하나인 시청가로이다. 칼호텔이 랜드마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색채로써 제주의 이미지는 느낄 수가 없다.

b)제주시 탑동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많이 모여드는 탑동에는 횟집이 일렬로 모여서 있다. 시인성을 높이려는 건축주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조잡하고 무개성의 색채군을 이루고 있다.

c)서귀포시 관공서
녹색지붕과 분홍색 블라인드 틴트 계열은 좁은 면적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건물인 만큼 좀 더 품위 있고 제주도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색채선택이 필요하다.

d)제주시 시청 벽면 수퍼그래픽
공공건물로서 친근감을 제공해야할 곳이 너무 원색적인 고채도의 색채사용으로 시각적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e)제주시 가로 사인
형태, 크기 등 규제없이 건물 벽면 전체를 덮고 있어 건물의 개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시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림 1> 제주의 도시지역 색채환경 현황

2.2. 농어촌지역

제주의 농어촌지역은 도시 지역과는 달리 주거지역으로서 다른 용도의 건물들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주로 주택의 색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주의 농어촌지역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된 주택개량사업으로서 어떠한 색채조사나 지침도 없이 초가지붕이 헐려왔다. 바람과 싸우면서 살아온 제주도민의 생활표현인 초가지붕이 빨강, 파랑, 녹색의 채도가 높은 슬레트 지붕으로 바뀌고 벽면은 그 지역의 흙과 현무암에 의한 자연스러움에서 페인트 도장으로 바뀌었다. 즉, 제주 고유의 돌담과 주변환경과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색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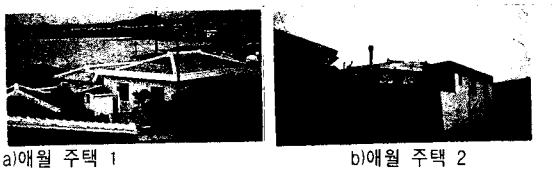
a)종달리 주택
서로 연결되지 않은 2-3채의 제주 전통민가 구조를 유지하면서 초가를 개량한 주택으로 지붕색이 서로 조화되지않아 한가족이라는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고 더욱 분리된 듯한 느낌을 준다.

b)청수리 주택
마을의 공공건물인 노인회관은 고채도의 지붕색과 벽면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노인회관인 만큼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색채사용이 필요하다.

<그림 2> 제주의 농촌지역 색채환경 현황

1)이희정(1996), 버네큘라디자인의 표현양식과 디자인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7

로 자극적인 시각적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건물양식이란 민족이 살아온 역사적인 조건과 자연과 적응하는 기후 조건에 따라 오랜 시일 속에 정형되는 것으로 초가지붕이 벗기고 슬레트로 덮히는 것은 역사적인 조건도, 자연적인 조건도 아닌 오직 개발에 의한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a)애월 주택 1 b)애월 주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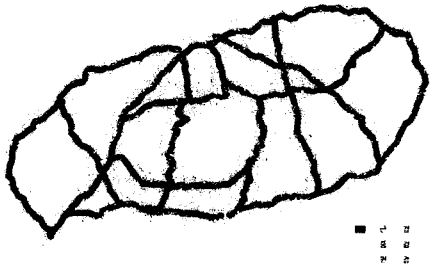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해안 지역에서는 파랑 계열의 지붕색이 크게 반발을 일으키지 않고 있으나 채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라색과 녹색 계열은 온도감에서 중간색에 속하므로 다른 색 계열과 조화되기 힘든 색이다. 이 주택은 보라와 녹색을 다른 색과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시각적인 혼란만 주고 있다.

<그림 3>제주의 어촌지역 색채환경 현황

다음은 제주도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공동 착수한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1994)'를 바탕으로 주요 도로, 해안변에 대한 가시지역, 경관미 평가와 시각적 흡수능력에 대해 살펴보고 색채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2.3. 주요도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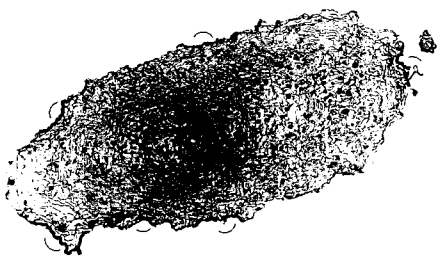


<그림4> 주요 도로에서의 가시지역
출처 : 제주도 · 국토개발원,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자료집), 제주도, 1994, p.674

<그림 4>에서 나타나는 주요도로에서의 가시지역 중 근경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적어도 그리고 우선적으로 환경색채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요도로에서 모든 주거지, 관광지로 통하는 1차도로이므로 도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주요 경관이기 때문이다.

2.4. 항구접안지역

해안변 가시지역을 크게 바다에서 항구로 진입할 때의 가시지역과 유람선의 항로에서의 가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5> 항구 진입시의 가시지역 분석도
출처 : 제주도 · 국토개발원,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자료집), 제주도, 1994, p.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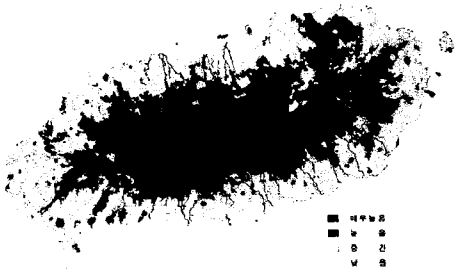
<그림6> 유람선 항로에서의 가시지역 분석도
출처 : 제주도 · 국토개발원,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자료집), 제주도, 1994, p.684

가시지역 구분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여 500m이내는 근경으로, 500-2000m는 중경, 2000m이상인 가시지역은 원경으로 보고 비가시지역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근경인 500m 이내의 가시지역에 대한 경관미를 높이고 제주의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과 함께 색채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다.

2.5. 경관미 및 시각적 흡수능력

각 경관별로 자연성과 고유성, 인공성 등의 정도에 따라 경관미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4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평가결과 '매우 높음'지역이 259.8㎢로 제주도 면적 14.2%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높음'지역이 70169㎢, '보통'지역이 701.9㎢이며, 시가지를 중심으로한 '낮음'지역은 171.0㎢이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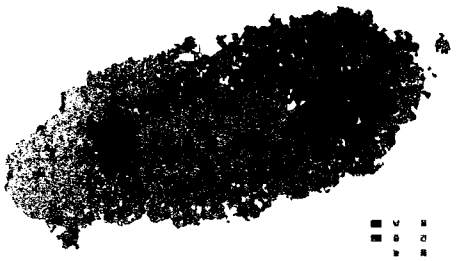
<그림 7> 경관미 평가도
출처 : 제주도 · 국토개발원,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1994, p.231

인공지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경관미에 있어 낮게 평가되었으

2)제주도 · 국토개발연구원,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1994, p.221

며 경관미가 '높음'의 경우 고도가 높은 지역에 분포를 보이는 특성을 보였다.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의해 경관미가 낮게 평가된 도시지역을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색채계획으로써 경관미를 높게 끌어올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각적 흡수능은 시각적 차폐성과 시각적 복잡성에 기초하여 평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각 경관 단위별로 '높음', '보통', '낮음'의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시각적 차폐성은 식생의 밀집정도 및 지형적 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시각적 복잡성은 상호 구별될 수 있는 시각적 요소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8> 시각적 흡수능력 평가도
출처 : 제주도 · 국토개발원,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1994, p.232

이러한 경관미 평가도와 시각적 흡수능력 평가도를 이용하여 경관미가 높고 흡수능력이 낮은 곳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존해야한다. 가급적 불필요한 건축물은 들어서지 말아야 하며 만약 굳이 인공물이 들어선다면 형태, 재료, 색채 등 모든 요소에 있어서 제주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통제, 계획되어야 한다.

2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의 색채환경은 환경색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무개성을 지나쳐 제주 이미지를 질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다음 장에서 제주만의 고유색을 준거로 하여 색채팔레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3. 고유색에 의한 환경색채계획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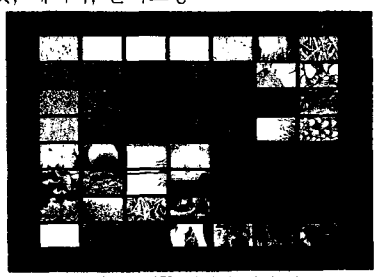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란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요소들, 즉 문화가 내재되어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환경색채라는 것은 작은 의미로써의 주변환경의 색채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사회, 경제, 문화와 인간 심리적인 모든 환경을 포함하는 색채를 의미한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제주의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색채환경은 무질서하고 건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시각적 공해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색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계획의 성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고유색을 반영시켜 무책임한 색을 제거시킨 색채 팔레트를 마련해야 한다.

3.1. 색채팔레트 디자인의 전제

도시 전체의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색채개념이 중요하다. 제주에 대한 색채계획에 들어가려면 우선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서 나타나는 색채를 분석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제주의 고유색 특징을 바탕으로 전체 이미지에 대한 색채 팔레트를 작성하고자 한다. 준거의 틀로 잡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양 : 흙, 모래, 암석
* 바다 : 패사에 의한 바다 색채, 현무암에 의한 바다 색채
* 식물 : 협죽도, 동백나무, 칠쭉, 억새, 유채, 문주란, 톳, 미역, 삼나무, 감귤
* 동물/ 조류/ 어류 : 조랑말, 꿩, 옥돔, 오징어, 자리
* 기타 : 갈옷, 해녀복, 돌하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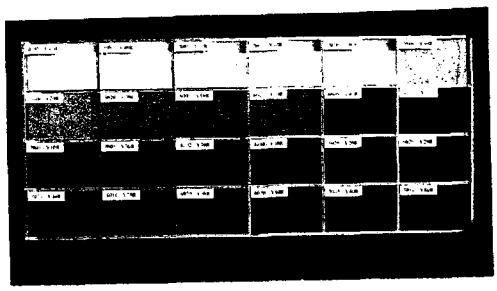


<그림 9> 제주 이미지 색채 팔레트

<그림 9>에서 살펴보면 식물의 녹색, 바다의 파랑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토양 색채와 같이 조랑말, 꿩, 갈옷, 억새 등 대부분 YR계열임을 알 수 있다. 식물의 꽃이나 과일의 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에서의 채도는 저채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역과 같은 자연에 순응하도록 환경색채계획시에는 자연에서의 채도범위를 넘지 않도록 0.5-2사이로 해야하며, 이벤트장이나 작은 면적의 액센트색은 고채도의 색채를 사용하되 제주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림 9>의 색채 팔레트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3.2. 토양색에 의한 지형적 자연색의 특징

피부의 색에 따라, 피부의 톤 차이에 의해 어울리는 옷의 색채가 있듯이 토양의 색채와 조화를 이루는 건물의 색채가 있게 마련이다. 전통건축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연재료의 색채가 그대로 건축물에 반영하게 된다. 즉, 각 지역마다 토양의 성분이 다르므로 토양의 색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그 토양을 건축재료로 많이 이용하게 되므로 토양의 색채는 지역색을 만드는 차별화의 요소가 된다.



<그림 10> 제주의 토양색채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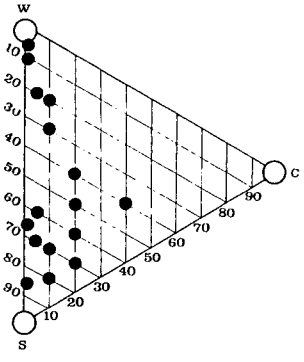
0502 - Y30R	1002 - Y40R	2005 - Y30R	2005 - Y40R	2010 - Y40R	3010 - Y40R
4020 - Y20R	5020 - Y20R	6005 - Y10R	6005 - Y20R	6005 - Y40R	6502 - Y
7005 - Y10R	7005 - Y30R	8502 - Y30R	4040 - Y30R	5020 - Y20R	6020 - Y20R
7020 - Y30R	8010 - Y20R	6020 - Y50R	6020 - Y50R	7005 - Y80R	7010 - Y80R

모래 흙 기타(송이)

· 모래 : 이호(6005-Y20R), 협재(0502-Y30R), 대정(4020-Y20R), 산이수동(7005-Y30R), 화순(2005-Y40R), 오봉(6005-Y10R), 성산(5020-Y20R), 종달리(2030-Y40R), 함덕(3010-Y40R), 삼양(7005-Y10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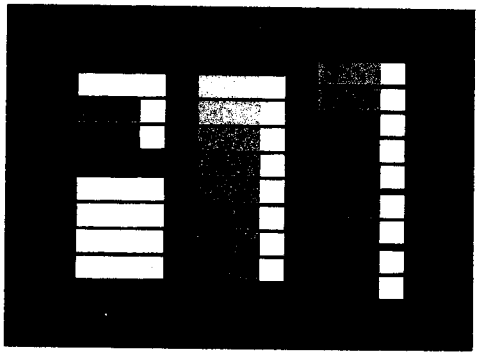
· 흙 : 동귀-구엄-용흥(갈색토:5020-Y20R), 중문-오라-구좌(암갈색토:6020-Y20R), 평대-행원-민악(흑색토:8010-Y20R), 흑악-노로-적악(갈색산림토:7020-Y30R)

<그림 10>은 제주 전역에 걸친 흙과 모래에 대한 샘플이며 대부분 YR계열의 색채군을 이루고 있다. 모래는 패사의 고명도에서부터 파식한 현무암에 의한 모래의 저명도까지 다양하며 저명도, 저채도의 Y20R 또는 Y30R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이는 얼마나 높은 열에서 생성되었느냐에 따라 다양한 색채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NCS 색삼각형에 의한 토양색 분포도

토양색 대부분 저채도로써 채색도가 유사하다는 1차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흰색도와 검정색도의 2차적인 속성에 따라 색채가 놓여지는 영역이 결정되고 있다. 어떤 영역에 놓인 색을 주조색으로 하느냐에 따라 배색 이미지가 달라진다.



<그림 12> 토양색채의 명도순 배열

유사한 색상별로 토양색채를 그룹핑하여 그것을 다시 명도순으로 배열하였다.

위와 같은 자료는 색채팔레트를 작성하기 위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색채팔레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위의 자료가 명도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주조색을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로 그룹핑하기 위한 준거가 될 수 있으며, 고명도 색채군 지역, 중명도 색채군 지역, 아니면 저명도 색채군 지역 중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주조색 선택시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를 선택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3.3. 환경색채계획을 위한 색채 팔레트 디자인

3.1.절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환경색채계획에 필요한 색채를 추출하여 면적 효과(area effect)를 고려한 배색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색채가 지닌 이미지는 단일 색상에서는 단순하게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의 색을 배색하는 경우에는 조합된 색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지를 갖게 된다. 즉 각각의 색채가 지닌 이미지와 함께 색채간의 명도, 채도, 색상의 대비 정도에 따라 배색의 이미지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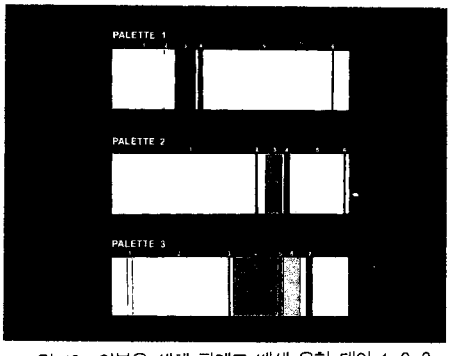
다음에 제시되는 배색 유형은 하나의 대안으로 선형적이고 획일화된 인공환경을 비선형적이고 융통성있는 환경으로 '통일 속에 변화/다양함'을 추구할 수 있다.

주조색(main color)과 보조색(sub color)은 대부분 제주의 토양색채에세 추출하고 액센트색(accent color)은 제주의 식생이나 바다 등의 색채에서 추출하였으며 외부용과 내부용으로 나누고 그 특성에 맞게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1) 외부 환경색채 배색 유형 제시

건축의 외부색채는 내부색채보다 보여주는 효과가 크다. 건물은 멀리 떨어져서 보면 배경이 아니라 그림으로서 시야의 중심적 존재가 된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림도 가까워지면 사람과 사물의 배경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멀리 떨어져 바라볼 때의 그림만을 생각하여 강한 색채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배경으로서의 건축색채의 기능에 대해 소홀하게 되므로 건축의 그림과 배경이 두 가지의 기능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도시경관 속의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자연환경의 색채조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계절이나 지역에 따른 주변 자연환경의 색채변화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시기나 시점만을 고려한 색채계획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림 13> 외부용 색채 팔레트 배색 유형 대안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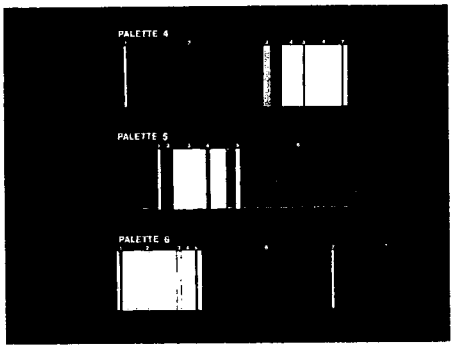
PALETTE	주조색	보조색	액센트색
1	5	1, 3	2,4
2	1	3, 5	2,4
3	2	4, 6	5,7

· PALETTE 1 : 고명도의 토양색 0502-Y30R을 주조색으로 한 유사색 배색이다. 액센트색으로는 고채도의 감귤색 1080-Y20R로 채도대비효과와 깊은 바다색 4550-B40G로 색상대비효과를 이용한 배색이다.

· PALETTE 2 : 고명도의 토양색 1002-Y40R을 주조색으로 하여 보조색 4010-Y40R과는 동

일색상 배색을 하였으며 액센트색으로는 보조색과 채도대비를 하는 칠쭉꽃색 4040-R20B와 주조색과 명도대비를 하는 바다깊은 곳의 색채인 6520-R90B를 선택하였다.

- PALETTE 3 : 중명도의 토양색 3010-Y40R을 주조색으로 한 유사색 배색이다. 액센트색으로 제주의 겨울꽃인 동백꽃 3560-Y90R과 주조색과의 명도대비효과가 있는 현무암에 의한 깊은 바다색 7515-B10G를 선택하였다.



<그림 14> 외부용 색채 팔레트 배색 유형 대안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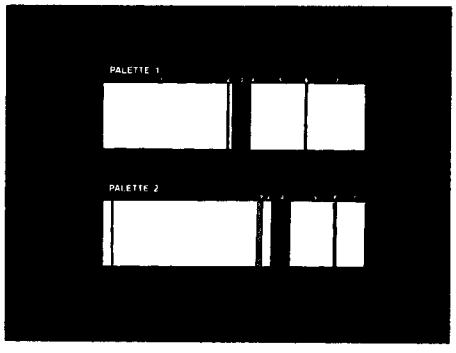
PLAETTE	주조색	보조색	액센트색
4	2	4, 6	3, 5
5	6	2, 3	1, 4
6	6	2, 4	3, 5

- PALETTE 4 : 저명도의 토양색 7005-Y30R을 주조색으로 한 유사색 배색이다. 액센트색으로 제주의 상징인 갈옷색 3030-Y50R을 선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유사톤 배색으로 흰색과 검정색을 첨가 함으로써 활력을 주었다.
- PALETTE 5 : 중명도의 토양색 6020-Y50R은 제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송이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선택하였으며 액센트색으로는 보조색과 명도대비를 이루는 여름의 짙은 나뭇잎색 5040-B40G와 선인장꽃 0540-Y10R을 선택하여 콘트라스트를 주었다.
- PALETTE 6 : 저명도의 토양색 7010-Y80R을 주조색으로 한 유사색 배색이다. 액센트색으로는 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유채꽃 0560-Y10R을 선택하여 명도대비효과를 주었으며 패사에 의한 바다색 4040-R80B를 선택하여 전체 팔레트에 활력을 주었다.

(2) 내부용 색채 팔레트 디자인

실내환경디자인에서의 색채계획은 재질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감정에 의해 색을 선택하게 되지만 설계자들이 적절한 색채사용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실내공간은 인간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기도 하고 접근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피부색과의 색채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밝은 색은 보다 많은 빛을 반사시키고 이와는 반대로 어두운 색은 보다 더 많은 빛을 흡수하여 보다 적은 양의 빛을 반사시킨다는 것을 색채의 적용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외부 색채 팔레트와 차별화를 두어 온화하고 청명한 색을 사용하여 쾌적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15> 내부용 색채 팔레트 배색 유형 대안 1, 2

PLAETTE	주조색	보조색	액센트색
1	1	5, 7	2, 4, 6
2	1	5, 7	2, 4, 6

- PALETTE 1 : 고명도의 0502-Y10R을 주조색으로 한 유사색 배색이다. 보조색은 산호모래색 1002-Y40R을 선택했으며, 액센트 색으로 주조색과의 채도대비효과가 있는 동백꽃색 3560-Y90R과 명도대비효과가 있는 깊은 바다색 6520-R90B, 그리고 제주 의생활의 상징인 갈옷색 3030-Y50R을 선택하였다.
- PALETTE 2 : 고명도의 토양색 0502-Y30R을 주조색으로 하고 액센트색으로는 실내의 수목을 고려한 나뭇잎색 5040-B40G과 송이색 6020-Y50R을 선택하여 면적효과를 고려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외부용, 내부용 색채 팔레트를 통해 창조적이고 차별화된 환경,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갖춘 인공환경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색채 팔레트는 하나의 패턴랭귀지(pattern language)로서 언어적 기능, 즉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한다.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건축의 형태와 색채의 관계는 도시형성 과정의 1단계상 인간의 활동 및 행위를 담게 되는 그릇으로서 형태가 중요하고 먼저 결정되기 때문에 형태는 색채에 선행하며 색채가 형태를 지배하지는 않지만, 색채는 도시경관의 시각적 효과를 증진 또는 악화시키는 2차적인 요인이 된다.

그러나 도시경관의 질적 개선을 위해 1차적인 건축물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단기간의 개선 방법은 비교적 경제적이며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적용 범위와 개선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경관에 있어서 건축 색채는 인간의 시지각을 통해 안락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창출하여야 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제주의 색채환경 현황에서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그 개선방안으로서의 색채 팔레트를 제안해 보았다. 우선, 현재 제주의 색채환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주의 고유 이미지는 사라지고 그 결과 다른 도시지역과의 차별성이 없으며 환경 색채에 대한 무관심속에 앤트로피만 증대되었다.

둘째, 농어촌지역은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지붕개량사업으로 인해 초가가 슬레트로 바뀌었다. 흑백시대에서 아직 색채시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행이라 지붕의 색채는 고채도의 원색으로 바뀌게 되었다. 외벽은 돌담으로 가려지고 2층이상이 많지 않은 경관에서 지붕은 주조색이 되는데 고채도의 원색지붕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으며, 주거지역인 만큼 쾌적성과 편안함이 제공되어야 할 지역이 고채도로 인하여 시각적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낮은 채도조절이 시급하다.

셋째, 주요도로지역과 항구접안지역은 시민들의 주거지와 관광지로 통하는 1차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인상을 심어주는 중심경관이 되므로 근경인 500m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특히 우선적으로 환경색채계획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규제가 필

요하다.

넷째, 경관미 평가에 있어서 제주 전체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나 인간에 의해 건조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시각적 흡수능력 평가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이 시각적 차폐성과 시각적 복잡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제속에서의 절제된 색채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제주의 색채환경은 무관심속에서 무질서하고 아이덴티티가 상실되고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색채환경에 변화를 주어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총체적인 색채계획이 필요하며 계획의 성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준거가 될 수 있는 색채 팔레트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색채 팔레트 디자인을 위한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정시켰다.

첫째, 제주 전체 색채 이미지의 특징을 토양, 식물, 동물/조류/어류, 기타 제주를 상징하는 색채에 대하여 정리한 결과 식물의 녹색, 바다색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토양색을 포함하여 YR계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의 내용으로 색채 팔레트 디자인을 위한 색채의 범위를 한정시켰다.

둘째, 주조색을 결정하기 위해 토양색에 관한 색채의 특징을 살펴보고, NCS 코드화시켜 색채 팔레트가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이러한 색채 팔레트 디자인을 위한 전제조건을 살펴본 후 토양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에서 액센트색을 추출하여 외부용과 내부용을 위한 색채 팔레트 디자인을 하였다.

외부용 색채 팔레트는 제주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어 주조색이 고명도일 때, 중명도일 때, 저명도일 때를 각각 나누어 배색유형을 디자인 하였으며 내부용 색채팔레트는 빛의 효율을 고려하여 고명도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하고 온화하고 청명한 색을 사용하여 쾌적성을 강조함으로써 외부용와 차별성을 두었다.

본 연구는 대상지를 제주로 한정하였으나 신도시개발, 도시재개발시에 본 연구가 충분히 일반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연구를 통해 색채전문가뿐만 아니라 행정가, 교육가, 언론인, 일반시민들에게 있어 색채 환경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계속적인 환경색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고성종 · 고필종, 도시와 환경디자인, 미진사, 1994
2. 제주도건축사회, 제주건축, 1992
3. 제주도 · 국토개발원,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 제주도, 1994
4. Color planning center, 장준호역, 환경색채디자인, 도서출판국제, 1991
5. Jean Philippe, 김기환역, 랑크로의 색채디자인, 도서출판국제,1994
6. Tom Porter, 박재승역, 건축의 색채디자인, 도서출판단우, 1996
7. Jean Philippe Lenclos, Les couleurs de la France, Moniteur, 1990
8. Faber Birren, Principles of Color, Van Nostrand Reinhold, 1969
9. 권진희, 제주의 고유색 현황과 도시지역 색채문제 개선을 위한 환경색채 조화 방법 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0. 이보영, 시각정보체계로서의 도시환경색채 기능과 자연색체계(NCS)적 접근방법에 의한 경관의 질적 수준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11. 김길홍, 환경색채의 이해와 적용, 공간, 1985.5
12. 박돈서, 색채조화원리와 도시 건축의 색채, 건축문화, 1995.5